

자연의 제 1성 : 적응과 생존



"시장(환경)의 결정은 회사의 규모와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환경에 요구 되어지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할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제2의 제3의 GM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150년 전 인류는 신의 창조물로서 종속적 세계관의 껍질을 깨고 역동적으로 자연과 세계에 도전하고 변화하며 적응하는 완전한 주체로서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250만년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으며 오늘날 현대과학이 굳건히 자리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다. "변화에 적응하는 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험적 증거는 물이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역학처럼 진리에 가까운 자연의 제1성(The Uniformity of Nature)이 되었다.

진화론(Evolution Theory)의 본질은 적응과 생존에 있다.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종의 보존과 개체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투쟁을 한다. 그 역동(dynamics)속에서 냉엄한 자연의 선택을 받는다. 살아남은 종은 DNA속에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서 유전 시키며 세대간 구조적 연속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

사회적 생태환경도 비슷한 역동성과 메카니즘을 가지고 진화한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은 새로운 생존의 조건들을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내고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어가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강한 역동성을 동반하며 그 속에서 존폐의 운명이 갈린다. 승리는 변화하고 적응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미국의 3대 자존심 중 하나인 GM이 결국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생존 조건을 인식 하지 못한 경영진의 안이한 대응이 부른 자명한 결과이다. 시장(환경)의 결정은 회사의 규모와 역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단지 새로운 환경에 요구 되어지는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만이 생존을 보장할 뿐이다. 우리는 앞으로 제2의 제3의 GM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는 변화하지 않은 자들이 예외 없이 겪게 되는 결말이며 자연의 제1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회사와 조직은 시장과 상호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생존과 진화의 조건을 창출해가야만 한다.

신과 자연의 전쟁에서 승리자는 아직 없는 듯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경계인이 아닌 상호작용의 주체라는 것이다. 목표는 "생존" 이고, 생존의 필요조건은 "변화" 이다. /

Written by C.E.O 노상충(James Roh)

James Roh

